

‘남북분단의 恨’ 아시아미술제로 昇華

위원장 윤진섭, 부위원장 이만구·이중효 위원 선정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포천아시아미술제조직위원회가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일간 개최될 예정인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주제가 “恨”로 정해지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포천아시아미술제 개최에 앞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포천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진섭) 제2차 회의에서 밝혀졌다.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총감독은 조직위원장이 겸직하고 총감독은

몇 명의 큐레이터를 더 지명하도록 했으며 조직위원회를 2개의 분과로 구성해 소위원회별로 필요시 1~2명 영입하여 운영하되 중요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받도록 결정했다.

또 이날 포천아시아미술제 부위원장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과 이중효 포천시의회회의원이 선정됐으며 기획위원장은 김찬동 위원이 선정됐다.

포천반월아트홀과 포천시 일원에서 개최하게 될 포천아시아미술제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추진목표는 남북 분단에 대한 현실치사와 이를 통한 승화와 상처치유를 장을 마련하고 환경친화, 중소 도시에 걸맞은 독특한 문화행사 모델을 창출하는데 두고 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깃발미술제와 자유예술시장, 생활속의 미술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

이다.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를 준비하고 있는 포천시 관계자는 “프랑스에는 아비뇽축제가 유명하고 베니스에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미술제를 통해 독특한 예술축제를 개발,육성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포천아시아미술제조직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위원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위원 이중효 포천시의회회의원 ▶위원 유석우 월간미술사대 발행인 ▶위원 노준의 토발미술관장 ▶위원 윤한택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위원 김찬동 문예진흥원 미술전문위원 ▶위원 정현숙 대전대학교 교수 ▶위원 김대동 포천시 정책위원 ▶위원 채희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노숙자에게도 希望주는 합창단 구성

외국인근로자·탈북주민들과의 和音 기대



박지선 포천시합창단장

“포천시 반월아트홀은 외지인들의 극찬속에 포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더 많은 포용력으로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적극적으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대학문화를 접목해 보다 높은 관객의 수준과 공연자의 향상된 교감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포천시합창단장 최치선 단장(사진)이 포천반월아트홀에 거는 기대다.

포천시합창단합창단은 지난 94년6월25일 마흥중창단을 창립하고 창립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99년5월15일 중창단을 합창단으로 개편한 후 지속적인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2004년12월19일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포천사회에서 새로운 음악예술단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동안 연주한 작품을 모아 지난 2002년12월 마흥 앨범 제1집 馬興을 구입했고 지난해 12월에 제2집을 구입하기도 했다.

40여명으로 구성된 포천시합창단합창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치선 단장은 “시끄러운 소음이 관을 치는 세상이 우리 모두를 정서불안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과 인내를 뒤로 하고 세상의 악한 아우성을 마흥합창단이란 정수기로 정화시켜 여러분의 몸을 씻겨드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단장은 “비록 노숙자의 신분이지만 희망을 갖는 노래를 함께 불러 노숙자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마흥합창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해 마흥합창단의 새해 설거는 동네 상가에서 종이박스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고 새로운 위치에 오를때까지 화비를 받지 않음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포천 땅에만 3천여명이 넘는데 이들중에서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흥합창단으로 영입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마흥합창단과의 하모니를 기대한다.

최 단장은 마흥합창단이 연주하는 작품은 주로 40~50대까 공감할 수 있는 가요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해 최 단장은 “살림이 어려울수록 문화예술 살리기를 뒷전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문화예술은 언제나 앞자리에 내세워야 할, 한 민족집단 정신 그 자체이며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자ანი기 때문이며 포천반월아트홀의 공연문화 마인드는 포천시민의 위상결정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중에 대해 최 단장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 단장은 “최근 대전대학교 음대교수와 경북대 음대교수가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서 포천시 음악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돼 이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각층 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화음을 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세우고 있는 최치선 단장의 목소리에서 목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얻을 수 있었고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이같은 화음이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포천시합창단합창단의 단원명단이다. 단장 ▶ 최치선 ▶ 주무이사 ▶ 현세숙 ▶ 지휘 ▶ 김영철 ▶ 반주 ▶ 조미경 ▶ 단원 ▶ 강세철 ▶ 윤희철 ▶ 최동훈 ▶ 우종범 ▶ 김태석 ▶ 김현기 ▶ 이중용 ▶ 정민화 ▶ 박정근 ▶ 채하병 ▶ 류인권 ▶ 최상환 ▶ 이철우 ▶ 안경식 ▶ 함상진 ▶ 김요한 ▶ 홍용표 ▶ 박한수 ▶ 정관중 ▶ 이우성 ▶ 김성수 ▶ 김광태 ▶ 이성남 ▶ 지홍성 ▶ 김성철 ▶ 김준모 ▶ 윤인수 ▶ 이상용 ▶ 조현기 ▶ 조대룡 ▶ 조경환 ▶ 강경로 ▶ 박창업 ▶ 박종국 ▶ 이희영 ▶ 전순택 ▶ 박태중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족뮤지컬 ‘달타냥과 삼총사’

반월아트홀 대극장 26일 공연



오는 26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달타냥과 삼총사’

새하기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명작 뮤지컬 ‘달타냥과 삼총사’가 오는 26일 포천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전세계 부모님들이 추천하는 명작 ‘삼총사’를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각색한 뮤지컬 ‘달타냥과 삼총사’는 입학과 졸업 시즌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품성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진 가족뮤지컬의 형태이다.

또한 KBS 유명프로그램였던 ‘매직카드 마수리’에서 마수리 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해리역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던 오승운 군이 삼총사와 함께 프랑스를 지키는 달타냥 역으로 변신한 것도 큰 재미다.

프랑스의 대표작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작품인 삼총사, 삼총사

는 어린 시절 누구나 읽고 또래 친구들과 한번쯤 삼총사로서의 우정을 맹세했던 추억이 깃든 명작중의 명작이다.

‘달타냥과 삼총사’는 지금도 삼총사의 원작을 읽으며 사랑과 우정을 맹세하는 어린이들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했으며 어른과 아이가 하나되는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품이다.

오는 26일 오후3시와 7시30분 두차례 공연되며 입장료는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월아트홀(전화 031-530-8938)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btwart.net)를 참고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견학을 마치고...



이연옥 포천신주주부에게 지난 화현면지부장

지난 2월 4일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미술교실 어린이 31명과 김송이 선생님을 비롯한 정소년지도위원, 장남, 학부모 도우미 9명 등 총 42명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견학을 위해 시청에서 보내준 버스에 올랐다.

방학기간중 매주 금요일 어린이 미술교실이 열렸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선생님의 바람과 화현면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장님, 지도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미술관 견학을 계획하게 되었다.

버스 안에서 미술관 관람예절 등 간단한 주의사항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미리 예약해둔 시간에 맞추어 미술관에 도착했다. 학부모 도우미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미술관 견학을 시작했다.

미술관 직원들의 안내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어린이 미술관까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던 지친 모습은 어디가고 천진한 전사의 모습으로 모두 잠들어 있었다.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의장님, 면장님, 직원들이 모두 마중 나와 계셨고 모두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보였고 그 마음엔 더 큰 세상을 경험한 뿌듯함이 남았으리라.

견학을 마치고 서울랜드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놀이기구를 타기로 하였다. 코끼리 열차를 타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신나게 조잘댔고 두시간 후에 정문에서 모이기로 하고 조별로 흩어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놀이기구를 타느라 여념이 없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던 지친 모습은 어디가고 천진한 전사의 모습으로 모두 잠들어 있었다.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의장님, 면장님, 직원들이 모두 마중 나와 계셨고 모두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보였고 그 마음엔 더 큰 세상을 경험한 뿌듯함이 남았으리라.

digusdr011@korea.com



지난 4일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들이 과천국립현대 미술관을 견학했다.

‘0교시 문학시간’을 읽고 나서



김제민 학생명예기자

얼마전 학교에서 내준 숙제로 ‘0교시 문학시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은 말 그대로 우리의 학교의 수업시간처럼 0교시 문학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시와 소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시와 소설에 대한 공부를 간단히 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 하나에 대한 시를 설명해 주고 있고, 소설도 배경, 인물, 줄거리, 문체, 구성, 인물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렵다고 생각

하는 문학노트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0교시 문학시간이 고교생의 필독서라고 하는데, 시나 소설 또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셔도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만 생각하던 문학노트를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한번 읽어보세요.

warm1226@hanmail.net

화현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 많이 받는 누나·형 부러워



진효성 학생명예기자

2005년 2월 18일, 우리학교 강당에서 6학년 형, 누나들의 제58회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 5학년들은 일찍 등교하여 졸업식장에 의사 정리며 손뼉 맞을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추운 날씨에도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명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셨다.

우리학교 바이올린부 학생들도 모두 나와 졸업식 노래 등 축하곡을 연주해 주었다. 내 동생 효주도 바이올린 부라서...

나와 함께 학교로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정말 잘했다. 우리반 김준호의 송사에 이어 6학년 형, 누나들의 담사가 이어지는 동안 파워포인트로 지난 1년간 형, 누나들의 추억을 담아놓은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상식 때 형, 누나들은 무슨 상을 그리 많이도 받는지... 부러웠다. 이제 나도 6학년이 된다. 최고학년으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형, 누나들의 후배가 되자고 다짐해본다.

wlsqjtd1810@duam.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3)

포천의 범종(抱川之梵鐘)

‘범종’이란 원래 불사(佛寺)에서 아침 저녁으로 울려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리고 범요, 포교 행사 시작을 알릴 때 쳐서 사용되어 왔다. 옛날 인도에서는 시각을 알리며 인생무상(人生無常)을 경고하였다고 하는데 불교경전(중일아합경:繪-阿含經)에 보면 ‘종소리를 들으면 번뇌를 잊어버림으로써 종소리를 듣고 모아서 설법을 듣는자는 오래 고해(苦海)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칠계종도 있으나 대개 구리, 주석, 납의 합금으로 만든 종이고 세계 최대의 종은 러시아 모스크바 1733년 작(높이 16피트, 직경 22피트 8인치, 무게 183톤)이었는데, 주조소에서 옮기기 전 화재로 깨어졌으며 가장 오래된 종은 바빌론에서 발견된 3천년전의 것

으로 추정되는 종인데 소형의 컵 모양으로 생기가 철사로 매달려 되어 있다 한다.

그래서 신라 봉덕사종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으로 자랑하게 되었다.

봉덕사(奉德寺) 종은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그의 아버지인 성덕왕(聖德王)의 명복을 빌고자 만든 종인데 원래 본명은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이다.

경덕왕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의 아들 혜공왕이 만들었는데 제작자는 ‘일전(一典)’이었다 한다. (매우 크고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봉덕사종을 제작할 당시 몇 번씩이나 거둬 실패를 하자 일전(一典:제작자)의

누이의 갓난아이를 구리 속에 넣어 만들었다고 하나 전설일 뿐 믿을 것이 못된다. 어찌 재비신앙의 불사를 비롯하여 있어 어린 인간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한 많은 어린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성덕대왕신종’을 타종할 때마다 섞여 나와 ‘에밀레종(어미 때문에 죽어)’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다.

서울 종로의 보신각 종은 태조 4년(1395년)은종기에 세웠던 것을 세종때에 누각으로 다시 지었는데 임진란 때 모두 타버려 정릉(세조조)→원각사(중종)→남대문 앞→보신각으로 옮겨졌는데 처음 제작한 때는 태조비 강씨를 추모하는 신종사 종이 옮겨진 것으로 고종 32년 그 현판을 건 다음부터 보신각종(普信鐘)이 되

었다.

6·25 후, 불타고 보신각도 재건되었는데 깨져서 경북공으로 옮겨진 보신각종은 내년 개관을 앞둔 용산국립박물관으로 마지막 자리를 옮겼다. (파란만장한 수도 서울의 역사의 증인의 종이었다) 내고향 포천의 청성산성은 예부터 우리 포천고을의 읍성인데 고구려 마홀군(馬湖郡) 이래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청성산성을 포천현의 진산(鎭山)성인데 옛날 양만고(양사언신생의 아들)의 시에 의하면 아침, 저녁 나팔과 피리소리로 성문을 열고 닫았으며 시각을 알렸다고 한다.

이제 내 고향 포천에도 포천범종추진위원회(위원장 최충규)가 조직되고 범종이 건립된다고 하니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경사(慶事)는 물론 포천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범종의 우렁찬 소리가 온 세상 천지에 울려 퍼져 내고향 포천인들이 근심, 걱정 모두 잊고 기쁜 일만 있기를 기원해 보기도 하자.

필자연락처 02-932-2434